

**고1국어  
창비**

**2(2) 삼포 가는 길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 소설의 시점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소설의 일부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달라지는 점 등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략 부분 줄거리**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 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언 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 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달이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다.

“시집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예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였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듯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 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통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 보았다. 백화는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

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젯,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뇨, 백화란 여자 말예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 생활 못 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럴렀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뭇 땀예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그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삼포 가는 길」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이 주고받는 사투리를 통해 현장감을 잘 살리고 있다.
- ② 사건이 진행될수록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첫 만남은 목적지가 같아 우연히 동행하게 된 것이다.

2. 이 글을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업 사회가 가져온 인간 소외 현상을 비판하며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연대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삭막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사회로의 회귀를 역설하고 있다.
- ④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갖는 동병상련의 인간애와 유대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 부조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3. <보기>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ㄱ. 역순행적 전개로 현재 사건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ㄴ.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ㄷ. 작품 속 서술자의 심경 변화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ㄹ.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기존의 인물들이 몰랐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ㄱ. 발화를 통해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ㄴ. 한 인물의 심리에만 맞춰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ㄷ. 상징적 소재를 통해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ㄹ. 사건을 체험한 서술자가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ㅁ. 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 ① ㄱ, ㄹ
- ② ㄱ, ㅁ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 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A]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나)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럴쨌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그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삼포 가는 길」

5. [A]를 <보기>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머뭇거리고 있는 나 대신 정 씨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무슨 영문인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내 눈시울도 뜨거워져서 백화를, 아니 점례를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 ① 서술자가 인물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작품에 깊이 몰입하게 한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나 행동 등을 꿰뚫어 보고 전달함으로써 주인공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6. 이 글의 시점과 관련된 설명과 그 효과를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주인공의 심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인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체험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④ 부수적 인물이 중심인물이 겪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⑤ 작가가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직접 사건을 바라보며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 오는 아침 햇빛 아래 혈빛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하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그가 녀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쬐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겍게 붙어 올라온 진흙 멍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달이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이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려 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 메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 씨를 만난다. 정 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다.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르고, 술 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소?”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고 영달이는,

“언제요?”

하고 나서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꺾꺾 웃

기 시작했다.

“좋았지, 정말.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때 공사장에서 별 볼 일도 없었고 노임도 실했어요.”

“살림을 했군?”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봄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고 서울로 식모 자리를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우는 적도 있습니다.”

정 씨는 흐려진 영달이의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나)

**중략 부분 줄거리**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 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언 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아닌가…….”

[A] 정 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달이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

다.

“시집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풍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 「삼포 가는 길」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설명과 묘사에 의해서만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생기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8.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 ② 대사를 통해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 ③ 작품 속의 서술자를 통해 사건의 전개와 내면 심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 ④ 감각적인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처지나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있어.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 변화 과정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9.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을 요약하고 있다.
- ③ 사투리를 통해 향토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시각적인 묘사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다양한 비유법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노동자인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쳐 나온 후, 우연히 교도소 출신의 떠돌이 정 씨를 만나게 된다. 정 씨는 자신의 고향인 삼포로 가는 길이다. 동행하던 둘은 우연히 술집에서 도망쳐 나온 백화를 만나게 된다. 눈이 쌓인 산골길을 함께 걷던 그들은 초가에서 잠시 쉬어가게 된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벼운 느낌이였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덱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중략)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 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통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중략)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 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헛,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뇨, 백화란 여자 말예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 생활 못 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그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삼포 가는 길」

1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작가의 현실 비판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통해 변치 않는 사랑의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1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주로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말끝을 흐리는 화법을 통해 감정 표현에 여운을 두고 있다.
- ④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다.
- ⑤ 작품 안의 서술자에 의해 인물의 의식과 행동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 최다 빈출 유형 2

등장인물의 심리, 태도, 특성 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어떤 구절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 등을 알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 씨', '영달', '백화'뿐만 아니라 '노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 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언 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 씨는 벗어나서 불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달이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다.

“시집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예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곶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나)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 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 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다)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럴것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그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삼포 가는 길」

12. 등장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 씨는 영달이 정착해서 살기를 바란다.
- ② 영달은 백화의 모습에서 옥자를 떠올린다.
- ③ 백화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 씨와 영달을 대한다.
- ④ 정 씨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삼포에 가려고 한다.
- ⑤ 노인은 현재 삼포의 모습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13. 이 글의 '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삼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 ② 산업화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대변한다.
- ③ 인물에 대해 안타까움을 보이며 따뜻한 위로로 보내고 있다.
- ④ 인물들의 행색을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반감을 갖게 한다.
- 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해 비판 의식을 보인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행동을 통해 영달이의 따뜻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백화와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 백화에 대한 영달이의 관심과 연민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갈등이 해소되며 인물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 길에서 우연히 정 씨를 만난다. 정 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다.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르고, 술 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 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언 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안인가…….”

정 씨는 벗어나 불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달이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다.

“시집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예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택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 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통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끈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

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찐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 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헛,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 “아뇨, 백화란 여자 말예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 생활 못 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서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삼포 가는 길」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인물들이 살아가는 당대 현실이 감옥살이 만큼 힘들음을 알 수 있다.  
 ② ㉡: 백화가 살던 당시 군용차는 누구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 백화의 처지를 안쓰러워하고 배려하는 영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 백화가 영달과 정 씨에게 유대감과 신뢰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 백화가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잘 살지 못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6. 이 글을 각색하여 영화로 만들기 위해 토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화를 업고 가는 영달의 얼굴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백화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② 깃을 찾아 숲으로 모여드는 새들과 길을 떠나는 세 명의 모습을 대비하여 이들의 처지를 부각시켜야겠어.  
 ③ 날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통해 그들이 처한 힘든 현실을 드러내야겠어.  
 ④ 흙이 묻은 자신의 신발을 말없이 바라보는 영달의 모습을 길게 비추어서 영달의 처지와 고민이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⑤ 백화가 개찰구로 뛰어나가기 전 마지막 대사는 유대감이 느껴지도록 따뜻한 느낌의 배경음악을 넣어야겠어.

17.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위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구상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두운 눈길을 걷어가는 세 인물을 멀리서 비추어 고단하게 살아온 세 인물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도록 처리해야겠어.  
 ② 서로에게 정을 표시하면서도 생각하는 바가 달라 함께 가지 못하는 인물들의 안타까움이 잘 살아나도록 해야겠어.  
 ③ 정 씨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이내 결심을 한 영달이의 표정을 잘 살려야겠어.  
 ④ 정 씨와 영달이는 인부 행색을 하고 뜨내기 삶을 살아가므로 소품으로 배낭을 준비해야겠어.  
 ⑤ 기차가 달려가는 소리를 통해, 삼포에 일자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에 부푼 영달이와 정 씨의 활기찬 분위기를 살리는 게 좋겠어.

## 정답 및 해설

### 1. <답> ③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꿰뚫어 보고 이를 서술하고 있다.

- ㉠ 노인의 말에서 사투리를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인물들이 주고받는 사투리라고 할 수는 없다.
- ㉡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 ㉣ 이 작품은 대체로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 인물들이 우연히 동행하게 된 것은 맞지만, 인물들의 목적지가 같아서 동행하게 된 것은 아니다.

### 2. <답> ④

이 작품은 산업화로 인해 달라진 삼포의 모습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로 황폐화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정 씨', '영달', '백화'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며 서로 유대감을 보여 주고 있다.

- ㉠ 이 작품이 인간 소외 현상을 비판,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 ㉡ 이 작품에 인물들의 유대감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 작품이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대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 이 작품이 황폐화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 삭막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사회로의 회귀를 역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 이 작품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사회 부조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3. <답> ④

ㄴ. 노인의 말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로 황폐화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노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정 씨'

등 기존의 인물들이 몰랐던 '삼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ㄱ. 이 작품은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ㄴ.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한다.

### 4. <답> ②

ㄱ.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인물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

ㄴ.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ㄷ. 이 작품에서는 '영달', '정 씨'의 심리가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한 인물의 심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ㄹ. 상징적 소재를 통해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며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ㅁ.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한다. 따라서 사건을 체험한 서술자가 그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5. <답> ③

[A]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인 '영달'에 해당하므로 [A]를 <보기>로 바꾼다면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 <보기>에서 서술자인 '영달'이 인물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 <보기>에서 서술자인 '영달'이 인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 <보기>에서 서술자인 '영달'이 다른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물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 ㉤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는 자신의 심리만을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나 행동 등을 꿰뚫어 보고 전달하는 것은 [A]와 같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

당한다.

6. <답> ②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독자는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①, ③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서술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과거 체험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④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꿰뚫어 보고 서술하고 있다. 부수적 인물이 중심인물이 겪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⑤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작가가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독자로 하여금 직접 사건을 바라보며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7. <답> ②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① 서술자의 설명뿐만 아니라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③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한 것은 맞지만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다.

⑤ 사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8. <답> ④

'새벽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 오는 아침 햇빛 아래 혈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에서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영달이 처한 황량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①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이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 오른 멍꽂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 메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시대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사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한다.

⑤ 이 작품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의 변화 과정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9. <답> ④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를 통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자연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③ 사투리는 확인할 수 없다.

⑤ 다양한 비유법은 확인할 수 없다.

10. <답> ③

노인과 정 씨의 대화를 통해 산업화, 도시화로 황폐화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번치 않는 사랑의 염원은 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 거리가 멀다.

11. <답> ⑤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

는 작품 안이 아니라 밖에 위치한다.

- ① 이 작품은 주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이 작품은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 묘사 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어쨌든…….”,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등과 같이 말끝을 흐리는 화법을 통해 감정 표현에 여운을 두고 있다.
- ④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팔 시루떡’ 등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12. <답> ④

정 씨가 삼포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삼포가 정 씨의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삼포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함이다.

- ① “또 알우? 인연이 달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를 통해 알 수 있다.

13. <답> ②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에서 노인이 삼포의 도시화, 산업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노인이 삼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인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정 씨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 ③ 노인이 인물에 대한 안타까움과 위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노인이 인물들의 행색을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⑤ 노인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14. <답> ⑤

㉞은 목적지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야 하는 영달과 정 씨의 앞으로의 삶을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 ① 발이 뻘 백화를 업는 영달의 행동을 통해 백화를 걱정하는 영달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② ‘능력’은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달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백화와 같이 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
- ③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은 백화에 대한 영달의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로, 영달의 따뜻한 인간애가 드러난다.
- ④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 주고 싶은 행동으로, 동행 과정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음을 보여 준다.

15. <답> ②

㉞은 여비가 없으니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면 된다는 말이다. 군용차가 당시 누구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던 것은 아니다.

- ① ‘고해’가 ‘고통의 세계’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 씨의 말은 감옥뿐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은 백화에 대한 영달의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로, 영달의 따뜻한 인간애가 드러난다.
- ④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 주고 싶은 행동으로, 동행 과정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음을 보여 준다.
- ⑤ 백화가 고향에서 오래 못 견딜 것임을 암시한다.

16. <답> ①

영달이 백화를 업고 눈시울을 붉힌 것은 옥자를 떠올리며 백화에 대해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지, 백화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 ②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에서 ‘깃’은 보금자리를 의미하는데, ‘새들’은 ‘깃’이라는 갈 곳이 있는 반면 세 인물들은